



3GPP2 SC/OP 회의 요약

최진성 • TTA 차세대이동통신프로젝트그룹 의장
LG전자(주) UMTS 시스템연구소 시스템실 책임연구원

1. 회의명

- 3GPP2 SC/OP 회의

2. 일시

- 2002. 03. 18~19

3. 장소

- Renaissance Hotel, Maui, Hawaii, USA

4. 참석 회사/기구

- 모든 SDO 및 주요 회사가 참석함. 그러나 미국 플로리다에서 동시에 열리는 CTIA 쇼와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CDG 등 주요 MRG 참석이 저조했음.

5. 회의 개요

지난 SC 회의가 1월에 한국에서 열리고 이번에 다시 2개월 뒤에 바로 열리는것이라 큰 Issue는 없었음. 주로 모토롤라의 Sync Channel 문제와 Tantivy의 Appeal 문제가 다루어졌음. 또한 3GPP2의 2002년 예산이 이번 미팅에서 승인완료되었음.

6. 상세 회의진행

회의는 아침 9시에 시작하였음. 정족수 중 24개 회사가 참석하고, 바로 이어서 지난번 회의보고서를 수정하여 승인했으며, 지난회의 이후에 벌어진 correspondence를 논의하였음.

중요 correspondence로는 MWIF가 OHG와 공동으로 CN Harmonization meeting을 host할 것임을 공지함. 이어 TR45 회의보고를 Cheryl이 하였음. ESN 소진문제를 발표함. TR45 AH이 보고를 하였다고 함. 이 결과를 다시 3GPP2로 보고할 것이며, FCC에도 이 문제에 대한 단말기 의무사항을 오래 전에 정한 바가 있음. Adhoc이 문제해결을 위한 draft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함. UIM ID 부여 상황에 대한 TSG-N의 요청사항도 언급함. 이 사항은 TSG-N report 보고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Numbering JEM report도 받아서 해당되는 TR45 그룹으로 넘겨서 검토를 요청하였음.

다음은 TSG report를 보고받았음. 먼저 Sync channel AH report를 Adhoc 의장인 일본 KDDI의 Akira가 보고함. 이 Sync Channel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져나와 급기야는 지난 서울 SC/OP 미팅에서 별도의 Adhoc을 SC 직할로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왔음. 당시 미국의 Sprint,

Motorola를 위시한 몇몇 회사는 Spec change에 의한 해결방안을 추진해온 반면, 주로 한국업체를 위시한 반대 진영에서는 기존에 deploy된 1x 단말기로의 영향을 고려하여 Spec change가 아닌 구현상의 수정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일명 Workaround)을 주장한바 있음.

Akira의장은 workaround solution이 spec change 보다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함. 실제로 workaround solution과 spec change solution에 대한 비교는 여러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본인이 PG01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음. 또한 한국 carrier는 workaround solution 검토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결론적으로 Adhoc 의장은 AHG 내에서 consensus를 이루지 못하였고 따라서 SC의 지도를 요구한다고 결론을 지음. 바로 이은 토론에서는 먼저 국제 roam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spec change라고 일본 KDDI Hideo가 comment함. 한국의 BK는 work around solution도 당연히 국제 roaming을 지원한다고 주장함. 최종적으로 본 이슈는 offline 토론을 먼저 진행한 뒤에 오후에 다시 지속하여 결정하고, 다른 TSG 보고를 듣기로 하였음.

TSG-C report 논의중에 ARIB의 반대로 ITU-R WP8F에 보내지 못한 TSG-C의 새로운 RSPC update Procedure 개정안 문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하여 논의함. 의장은 차기 OP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3GPP/3GPP2, 차기 Harmonization을 위한 합동회의인 Paris 회의에 관하여(joint group for spatial model, transmit diversity) Qualcomm의 TSC-C WG3 의장인 Ed가 상세 사항을 발표함. 일단 현재로서는 Harmonization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선 상호 이해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함. 지난 해 11월에 열린 3GPP/PP2 합동회의 follow up 차원에서 만

나는 것이고 이번 Paris 미팅에서 주로 다루게될 소재인 MIMO 등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따라서 아마도 각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양 기구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덧붙임.

다음으로 TSG-N report를 Lucent의 TSG N 의장인 Betsy가 발표함. 발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TSG-N에서 진행중인 표준화 작업현황이었으며, Spec Editing작업을 위한 Technical writer 고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이 문제는 SC 의장이 leadership CC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 다음은 TSG-N의 요구사항인 UIM ID 부여 상황정보를 보다 자세히 하여 달라는 것을 논의함. TSG-S는 이 문제를 SC가 결정하면 UIM ID GL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SC 서기인 Henry는 TSG-S가 수정하고 SC review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 의견에 사람들이 동의함. 결론적으로 TSG-S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구나 회사를 초청하라고 권고하였음.

이어 TSG-P 보고를 의장이 하였음. Tom Hiller가 IETF liaison으로 새롭게 선출됨. 뒤이은 TSG-S 보고에서는 단말기 ESN 번호고갈에 따른 대책을 논의키 위해 만들어진 Numbering AHG 보고를 발표함. Numbering JEM report는 SC 의장이 대신 발표함. 이 문제는 지난 주 TSG-S 회의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으므로 간략하게만 의장이 소개하고, 지난 Seattle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잠정적으로 4월말 경에 열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TSG-S 회의에서 나왔고 따라서 다음 회의는 빨라야 6월 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TSG-A 보고가 있었으며, HRPD Phase II는 거의 완료되었고, IOS 4.3 기능확정 등을 보고함.

모든 TSG 보고가 완료후 Sync Channel 문제를 다시 논의하였음. 제일 큰 이슈중에 하나는 3/15로

정해져 있는 이 그룹의 활동기한임. SC 의장은 2 meeting cycle동안 활동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함. 두 달 동안 논의하여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대해 결론이 없는 경우에는 Spec change solution을 default로 채택키로 결정함. 특히 workaround solution들에 대해서는 spec change solution과 함께 CDG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여 3GPP2에 input하기로 잠정결정함. 아래 문장은 Sync channel 이슈와 관련하여 최종 결정한 SC 결론임.

TSG-C to proceed w/rev A Addendum 3 text based on the evaluation information provided in the synch channel ad hoc report (Document xxxxx) and that TSG-C will complete a Revision A addendum 3 text by their closing plenary on April 19.


The Synch Channel ad hoc will convene on May 10 to reach consensus on whether or not a specification change is required to resolve the synch channel issue. Based on their findings they are to deliver their conclusions to the opening plenary of TSG-C on May 13.

If the findings of the synch channel ad hoc are inconclusive, then TSG-C is instructed to proceed forward with release of Revision A Addendum 3 Sync channel fix by May 17 2002.

마지막으로 미국의 Tantivy사가 지난 번 SC 회의에 제출한 Appeal 문서를 발표함. 주요내용은 TSG-C의 EV-DV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

의하는 문서임. 각 TSG, WG에서 openness와 fairness가 보장될 수 있도록 SC가 이 문서를 각 TSG로 보낼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결정의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그러나 이런 사항을 각 TSG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여러 회사가 반대하여 결국 철회됨. 대신 이 문서를 각 OP로 보내어 참고하게 하는 안을 의장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배경 설명없이 굳이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Tantivy사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TSG 의장들이 숙지하는 차원에서 종결지음.

7. 회의 참가 느낌

이번 회의는 큰 이슈가 없어 무리없이 진행되었으나, Sync Channel 이슈로 업체들간에 큰 이견이 있어, 이부분에 대한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번 건을 통해 본인이 느낀 것은 표준화작업이 한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침투하게 경쟁하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한가지 우리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으로서는 보다 더 open mind로 전세계 다른 사업자, 제조업체들과의 1대1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3GPP2라는 국제 표준화 단체를 리드해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 같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이번 Sync Channel 이슈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느끼며 이점은, 우리가 국제 표준화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정통부, 아시아 IT 표준화 공동체 설립 제안

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아시아 국가간 IT공동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아시아 IT연구개발 및 표준화 공동체'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아시아 공동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아시아 IT공동연구 그룹' 창설 방안을 추진하고, 아시아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간 IT인력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2월 25~26일 서울에서 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25개국 IT고위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통부는 '아시아 IT연구개발 및 표준화 공동체' 설립 방안 등을 오는 6월1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아시아IT장관 회의'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내주초 열릴 SOM회의는 아시아IT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검토하는 준비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월드컵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아시아IT장관회의를 활용, 한국이 IT강국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등으로 연결하는 주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아시아IT장관회의를 '아시아의 글로벌 IT 주도권'을 행사하는 디딤돌로 삼아 디지털TV·브로드밴드 인터넷·위성 및 이동통신의 고도화 등 한국의 대외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제 인터넷회선비용연구(ICAIS) 강화를 통해 아시아 인터넷 허브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IEEE 802.11a·802.11b채택 무선 LAN시장 규모 21% 확대

IEEE 802.11b와 802.11a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무선 근거리통신망(LAN) 서비스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시장조사회사 델오로그룹이 2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무선 LAN 서비스 세계시장 규모는 3분기에 비해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전 분기보다 5% 증가하는데 그쳤었다. 보고서는 기기 가격 하락과 가정용 수요 확산을 무선 LAN 시장 확대요인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처음 등장한 차세대 표준인 802.11a 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판매액은 전체 무선 LAN 시장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802.11a는 최대 54Mbps의 처리속도를 낼 수 있어 11Mbps의 802.11b 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이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델오로의 그레그 콜린스 애널리스트는 "장비 가격 하락에 따라 가정용 802.11a·802.11b 무선 LAN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